

원금 못갚고 이자 내기도 벅찬데...

주택담보대출 한달새 급증

2조7000억 증가...전체 가계대출 잔액도 ↑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당국이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9월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42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가계대출이 늘어난데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작용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양도분을 포함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월중 2조7000억원이 증가해 8월(1조

7000억원)이나 7월(2조4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고 중도금 대출 취급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역시 경기 상승에 힘입어 증가 규모가 8월의 3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은 경기 상승세로 운전 자금 수요가 늘어난 등의 영향으로 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의 추석자금 지원 등으로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각각 증가 폭이 커졌다. /연합뉴스

은행 수신은 8월 3조5000억원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3조3000억원이나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이 예금리리를 내려 정기에 금의 증가 폭이 축소되고 수시입출식 예금도 세금 납부 등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은행 등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유출되고 주식형펀드 환매가 늘어 8월의 6천억원 유입에서 지난달에는 2조원 유출로 전환했다.

한은은 다만 지난달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를 제외한 광의통화(M2, 평균잔액) 증가율은 8%대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위험한 가계빚...DTI 상한 유지해야

〈총부채상환비율〉

KDI 정책세미나 "주택담보대출 구조 불안정"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허석균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정책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준이며, 높은 금리로 이자 지급 부담도 무거운

편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단지 대출 규모가 커졌을 뿐 아니라 상환방식과 만기구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상환방식에서는 원리금 일시 상환 방식의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만기구조 역시 아직 단기 대출의 비중이 큰데다 장기 대출도 상당수가

거치기간 이자를 갚는 '무늬만 장기대출'인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허 연구위원은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가격, 소득, 금리에 충격을 받으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이 이처럼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40~60%로 규제한 DTI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를 어려워"라며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DTI 규제를 조정할 경기 대응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북구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30여명이 1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점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광주시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 커피믹스 시장 남양유업도 도전장

남양유업이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커피믹스 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커피믹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품명이나 유통전략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커피믹스 시장에서 동서식품이 점유율 약 8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슬레가 16%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발업체와 지난 7월 진출한 롯데칠성음료 및 남양유업 등 후발업체 간의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연합뉴스

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대책위, 광주시에 대책 요구

북구 대형마트·SSM 입점저지 대책위는 1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북구에 건축불허 등 입점 저지를 요청해 왔지만, 북구가 건축허가 수순에 들어가자 상급기관인 광주시에 대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대책위원 아니라 북구 의회는 별도의 대책위를 꾸리고 광주시 의회 일

부 의원들도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입점 예정지 인근 고려 중·고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2197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97.4%인 2139명이 입점에 반대할 설문조사를 통해 확실히 점해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입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북구 매곡동 입점 예정지를 자치단체에서 사들여 공인 등 공공부지로 활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이날 오후

광운대 광주시장과 면담을 통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소상인 등의 강한 반대와 달리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많지 않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해당 마트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 상생협력법률안은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광주銀 분리매각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 일시적 금융지주 설립 허용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금융지주사 설립인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주회사를 쪼개서 파는 인적분할 매각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도 이를 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금융지주사 매각시 3

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금융위가 사업 지속성 심사시 재량권을 갖도록 해 일시적 금융지주사를 인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금융 매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할 때 또는 매각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필요성에 의해 일시적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매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금융 매각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 우리금융 매각방식과 관련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용보증 경제상승 효과 금리정책보다 오래 지속

신용보증기금은 13일 한국중소기업학회 분석한 '2009년도 신용보증 성과분석' 보고서를 인용, 신용보증 정책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금리정책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80~2009년 장기시계열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자율 인하를 통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이자율 하락 뒤 두 번째 분기까지 지속하다가 세 번째 분기 이후에는 오히려 부(負)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대출금 대비 보증잔액비중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는 10분기 이상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신용보증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금리정책보다 뛰어났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섞으니 잘 팔리네"

하이브리드 음료 매출 '경풍'

음료시장에 서로 다른 영역의 제품이나 맛을 섞어 만든 '하이브리드'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13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과즙(10%)에 탄산을 섞은 '트로피카나 스파클링'은 작년 9월 출시된 지 1년 만에 3천만 캔이 팔리며 누

적 매출 120억원을 돌파했다.

과즙 비율을 100%로 높여 탄산과 섞은 과즙·탄산 혼합 음료 '트로피카나 스파릿'은 지난 4월 출시된 이후 월 매출 5억원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5월 출시된 '밀몬트 주시라떼'는

과즙이 2~3% 정도만 함유된 기존 과일맛 우유와 달리 과일 퓨레 함유를 20%까지 늘린 과일·우유 혼합 제품으로, 월 매출 2억~3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탄산에 우유를 섞은 유성(乳性) 탄산음료 '밀키스'는 올 7월 과일 맛 2종을 추가한 이후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10% 늘었다.

떠 먹는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시리얼을 섞은 '비요프'는 2004년 출시 이후 하루 평균 5만개씩 팔려 누적 판매량이 1억개에 달한다. /연합뉴스

하나투어 '올해의 브랜드 대상'

하나투어는 한국소비자포럼이 주는 '2010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2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한 행동 산업별 최고의 브랜드 가치와 고객만족을 제공한 기업을 조사, 수여하는 상이다.

하나투어는 올해 수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여행서비스 부문 1위 브랜드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2012 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여수

세계로 준비하는 **미항여수**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다짐

2010여수시민의날

제12회 여수시민체육대회

2010. 10. 15(금) ~ 10. 16(토)

기념식 전남경기장 | 10.15(금) 10:00

여수시민체육대회 전남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 10.15(금)~16(토)
축구와 10개 종목

문화예술행사 거북선공원, 시민회관 등 | 10.1(금)~23(토)
제34회 여수예술제, 2010여자만갯벌노출축제 등 17개 공연·전시·경연·축제

여수시·2010여수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여수시체육회